

유기농업 철학과 원칙의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

김 호**

Issues on Overcoming Present Crises of Organic Agriculture through its Philosophy and Principle

Kim, Ho

The organic farming was begun with principles and values like environmental friendliness, symbiosis, and cooperation and circulation. And there has cut keen market competition, as sales and market siz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much larger. Thus producers and consumers have kept up with the market trend making light of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rganic agriculture. So cases of fraud or false certification have been increased since 2010. Accordingly, not a few consumers have distrusted of the safety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status of organic agriculture has shown downward trend and market siz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reduced since 2012. Thus the income of organic agricultural farmers hasn't been increased. It is thought that present organic agriculture fell into the crisis. Now, organic agricultural farmers should practice farming methods based upon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rganic agriculture in order to overcome its crisis.

Key words : *organic agriculture, philosophy and principle, environmental friendliness, symbiosis, cooperation and circulation*

I. 서 론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농업인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소득향상 기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친환경인증제의 실시 등에 따른 가격차별화 가능성 등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 이 연구는 2015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hokim@dankook.ac.kr)

농업 면적은 연평균 유기농업이 40.3%, 무농약재배 39.5%, 출하량은 연평균 유기농업이 21.9%, 무농약재배 25.6%씩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0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농약인증의 중단과 폐지예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대표적인 차별화 유통경로인 생협 유통물량의 낮은 증가율, FTA로 인한 수입 유기농식품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가격 및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슈가 된 부실·허위인증 사태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의 감소 등 때문에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유기농업의 환경친화성과 생태계 및 경관보전, 안전성 등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며, 유기농산물은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기농이 또한 유기농업의 철학과 원칙을 경시한 채, 단순히 시장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응한 상품의 생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유기농업이 위기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의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유기농업의 변화 추이, 친환경인증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유기농업의 개념과 철학 및 원칙의 관점에서 유기농업 위기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기농업의 전개과정

1. 유기농업의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¹⁾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유기농업 생산자조직은 1976년 1월 20일에 설립된 정농회이다. 정농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농사로 실천하는 모임이다. 정농회의 창립목적은 경천애인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전 농토가 화학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숭선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Lim et al., 2016)하는 데에 있다. 정농회는 일본의 「愛農會」와 교류를 계기로 조직되었으며, 지금도 생산자들이 조직단위로 상호 방문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생산자조직으로서 한국유기농업협회는 1978년, 한국자연농업협회는 1986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1988년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는 1990년부터 활동방향을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하여 환경운동단체 및 유기농업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며 활동하고 있다.²⁾ 생산자조직의 유기농

1) 이 부분은 Kim (1995)을 수정 요약 및 보완하였다.

2) 초기 유기농업 실천가들은 日本有機農業研究會의 월간지인 「土と健康」을 구입하여 연구하고 유기

업 실천 동기는 생산자의 농약중독과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는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인 농법을 추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유기농산물 소비자단체 중 대표적인 것은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 등이다. 한살림은 1986년에 12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생명의 세계관 및 가치관의 확산과 이에 맞는 생태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생활양식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세상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생태순환형 지역농업의 육성 및 실현과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존 공생 등에 두고 있다(Kim, 2007)이다. 아이쿱생협은 1990년대부터 설립된 지역생협의 연대조직으로서 21세기 생협연대, 한국생협연대 등의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복중심생협은 1989년에 설립된 여성민우회생협을 모태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UR협상이 진행 중이던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UR타결과 함께 농산물수입이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우리 농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때 주요 일간지는 1992년부터 수입농산물에서 발암성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³⁾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수입농산물의 농약잔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1994년 11월에는 이 같은 유기농업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단체 14개가 모여 환경보전형 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현재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⁴⁾를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소비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1995년 5월 30일에 환경보전형 농업의 제도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지원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목적을 보면 당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취지와 추진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수질 및 토양오염의 방지, 농경지의 지속적인 경작,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 환경보전형 농산물 및 가공품은 생산방법뿐 아니라 가공방법, 유통방식 등에 있어 일반농산물의 경우와 뚜렷한 차별성이 있으므로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전 과정을 포괄해야 농업환경의 보전과 안전한 식품의 공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에 관한 도서의 출판, 생산자 및 소비자 강연회, 세미나, 연수회 등을 통해 유기농업을 보급해 왔다(Kim, 1995).

3)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4) 그 당시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환경농업으로 축약하였다. 그런데 환경호르몬 사태가 발생하자 환경농업과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98년에 친환경농업으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때에도 환경보전형 농업은 유기,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총칙, 정부의 역할, 관리위원회(중앙-시도-시군 등 3단계 체계, 협의회의 자율적 관리 등), 생산기술 및 생산물의 구분, 가공·판매·물류센터, 품질인증(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생산 및 가공·유통 지원기금(자조금), 감독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친환경농업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관리위원회)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생산-가공-유통(물류)-소비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향은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의 환경친화성 회복 및 경영적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고조에 따라 정부는 1991년 3월 학계, 농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20명으로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유기농업의 실태조사(생산), 유기농업의 기술체계 확립, 유기농산물 품질보증, 유기농산물의 유통개선 등이었다. 그리고 1992년 8월에 유기농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의 개념이 투입농자재를 기준으로 구분된 근본적인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유기농업학회는 1991년 12월 14일에 108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목적은 유기농업에 관한 이론과 정책 및 역사를 연구하고 그 연구내용을 널리 보급하여 유기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창립 당시 회원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등 학계와 연구원,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소(지금의 농업기술센터) 등 공무원, 유기농자재회사 등의 직원, 정농회, 풀무원농장, 광록회, 가톨릭농민회, 유기농업협회 등 생산자조직의 회원들로 되어 있다. 즉 산학관연이 참여하여 발표·토론하는 유기농업에 관한 실사구시의 학회로 출발하였다. 그래서 학자 및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학회와 달리, 현장의 유기농가들도 참여하여 현장 지향적인 연구 및 사례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유기농업실태를 이론화하는 장이 되고 선진적인 사례가 타 유기농가에게 전파되는 등 유기농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2.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한 주요 변화 추이

Fig. 1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전년대비 유기농산물의 출하량 변화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15년 간 연평균 증가율 21.8%이다. 2001년 대비 2002년에 출하량이 97.9%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30.5%로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출하량은 유기농가수 및 유기재배면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06까지는 출하량의 변화율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변화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유기농업의 기술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최근 들어 유기농산물의 출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전년 대비 각각 30.5%, 18.2%, 1.3%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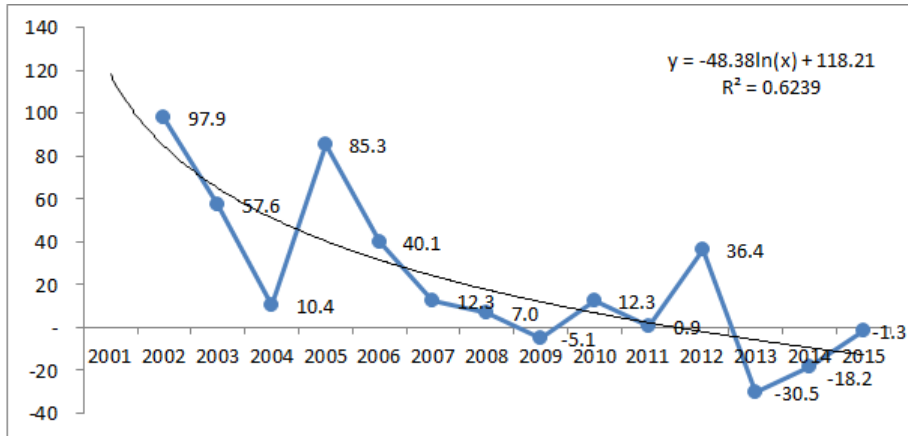


Fig. 1. Change Rates of organic agri-products sales (%).

그리고 유기농가수의 변화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 Fig. 2이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개년의 연평균 변화율은 35.6%이다. 2005년에는 유기농가수와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64.6%와 85.3%씩 증가하였다. 유기농가수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13년~2015년에 전년 대비 각각 -16.6%, -16.7%, -0.2%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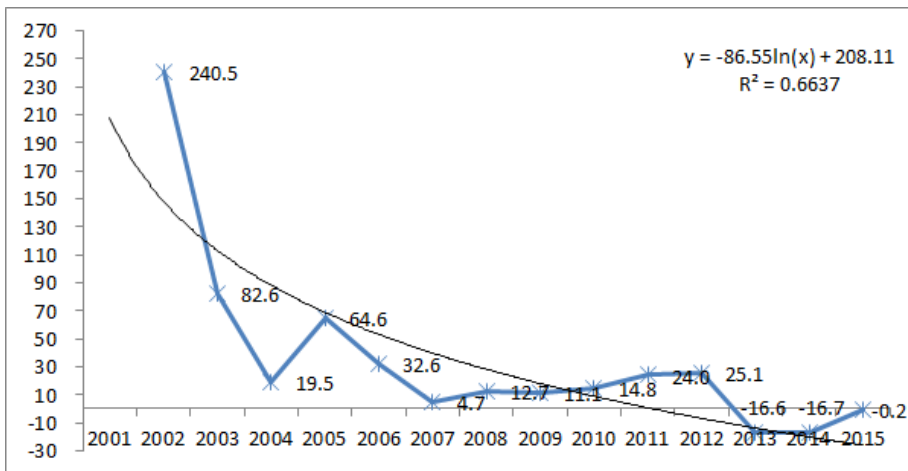


Fig. 2. Change Rates of organic agri-products farme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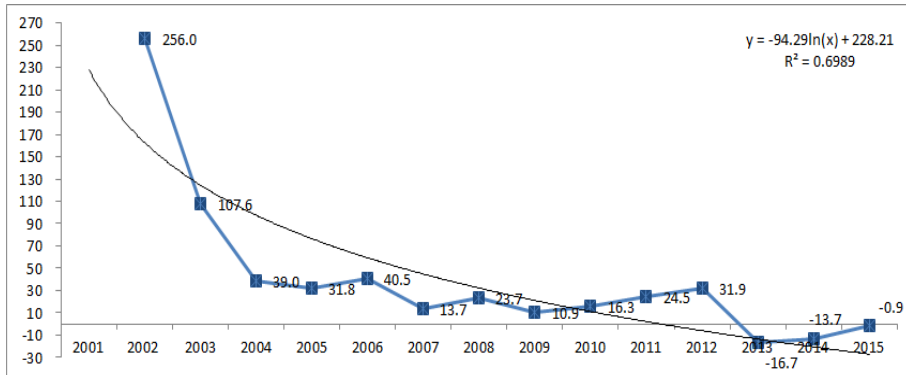


Fig. 3. Change Rates of organic agri-products cultivation areas (%).

Fig. 3은 2001~2015년 간 유기재배면적의 변화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5개년 간 연평균 변화율은 40.3%로서 유기농산물 출하량 및 유기농가수의 연평균 변화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가의 호당 유기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기농가 호당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기농가수 및 출하량과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2012년 각각 16,733호, 168,256톤, 25,476ha)해 왔지만, 2013년 이후부터 감소추세(2013년 각각 13,963호, 116,991톤, 21,210 ha)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5년 들어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s of change rates of sales, farmers and cultivation area

Change rates of	Max.	Min.	Standard deviation	Average change rates per year
Sales	97.9	0.9	36.0647	21.8
Farmers	240.5	0.2	62.5583	35.6
Cultivation areas	256.0	0.9	66.4083	40.3

한편, Fig. 4는 유기농가 호당 유기재배면적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유기농가수 증가율보다 유기재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과 같이, 유기농가 호당 재배면적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유기농가 호당 유기재배면적은 1.02ha이었는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57ha와 1.56ha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2014년에 1.57ha, 2015년에는 1.54ha인 것에 비해 유기농가의 호당 유기재배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유기농가 호당 유기재배면적의 증가는 곡물류의 유기면적 증가와 연관성이 크다(Kim 2014). 그리고 유기농업도 점차 규모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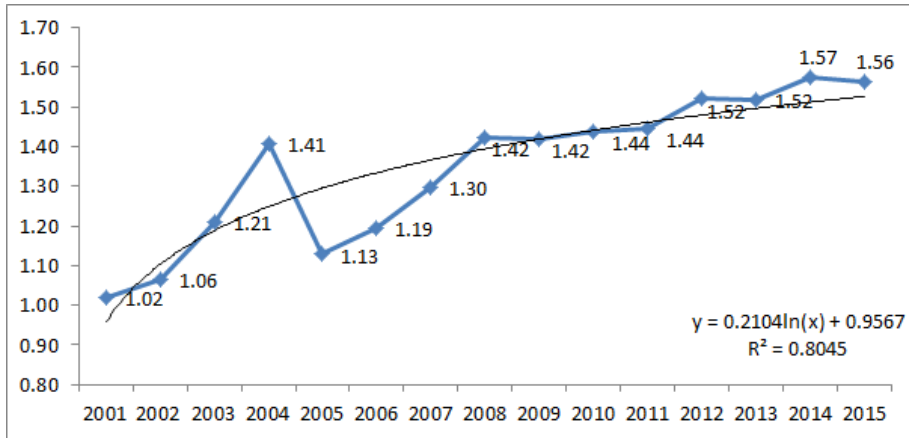


Fig. 4. Changes of agri-products cultivation area per organic farm (ha).

유기농가 호당 유기농산물 출하량의 변화 추이는 Fig. 5와 같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출하량은 12.1톤이며 2001년에 24.1톤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에 8.1톤으로 가장 적었다. 즉 유기농가 호당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 9.2톤으로 10톤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8.4톤, 8.2톤, 8.1톤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유기농가 호당 유기재배면적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호당 유기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유기농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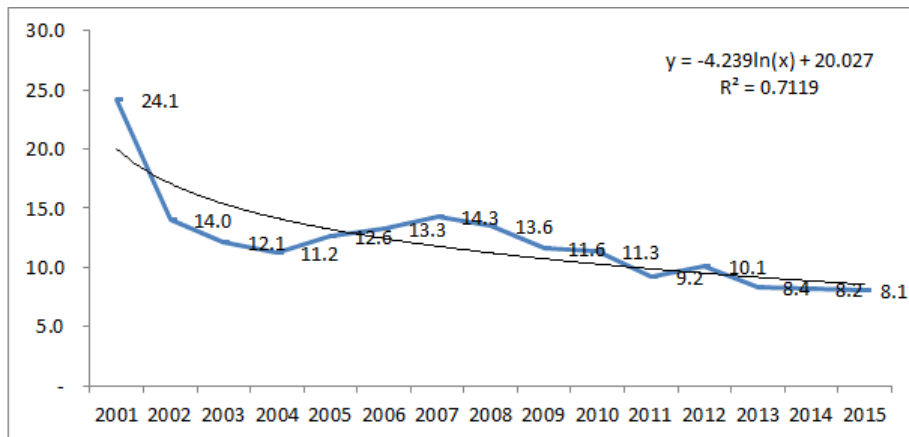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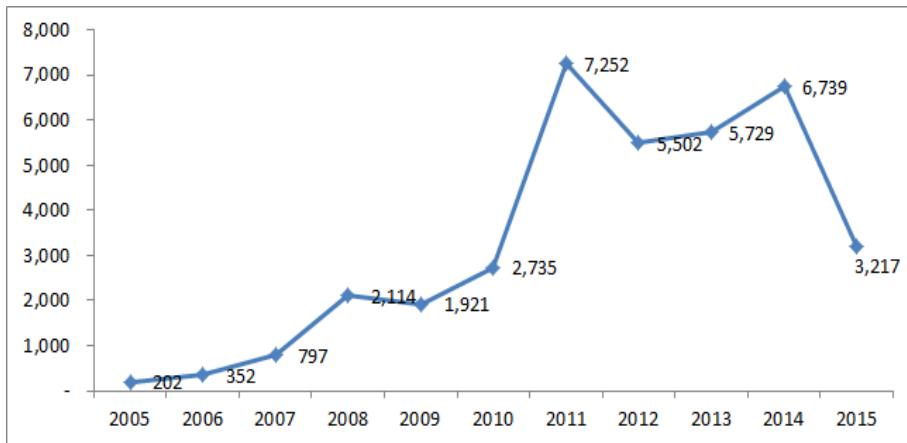


Fig. 5. Sales changes per organic farm (M/T).

3.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취소 건수 추이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취소 건수는 2011년에 7,25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2~2013년 3

년간 각각 5,502건, 5,729건, 6,739건 등 5천 건을 넘었다(Fig. 6). 2011년에 인증취소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2010년부터 저농약재배에 대한 신규인증을 중단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10년에 농산물 잔류농약 등의 분석건수는 14,282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15,982건으로 1,700건(11.9%)을 더 증가시켰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0년 5개소에서 2011년 10개소로 2배나 증가하였다(www.naqs.go.kr). 이 같은 인증취소 건수의 증가는 유기농산물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얻기 위한 농가의 부정행위, 또 민간인증기관이 보조금과 연계된 친환경농자재의 판매량 확대를 위한 허술한 인증관리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ources : www.naqs.go.kr

Fig. 6. Certification cancellation cases of environment-friendly agro-foods (case).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건수 대비 인증취소 건수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에 총 인증건수 8,736건 중 202건이 인증 취소되어 2.3%를 차지하였는데 2011년에는 27,348건의 인증 중 7,252건이 인증 취소되어 인증취소 비율이 무려 26.5%나 차지하게 된 것이다. 2014년에 일부 언론매체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집중 점검한 결과, 인증건수 대비 인증취소 비율이 22.8%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인증 취소 농축산물은 인증표시를 할 수 없으며 친환경 농축산물로 유통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증취소 건수의 증가는 소비자의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소비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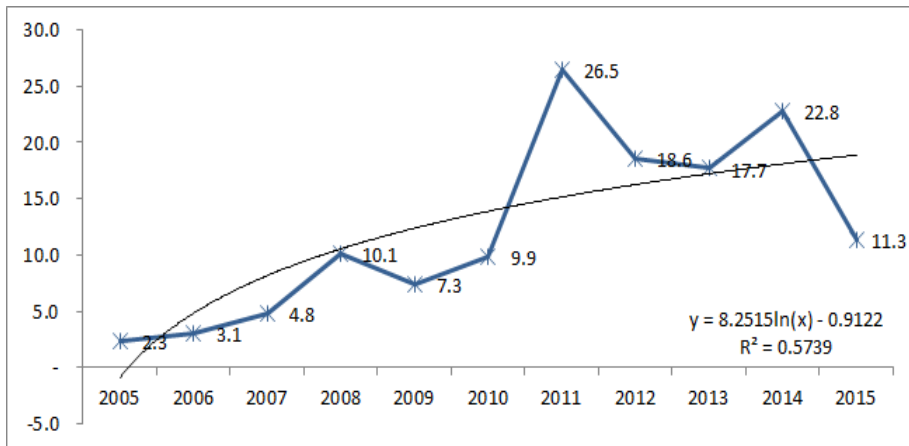


Fig. 7. Rates of certification cancellation cases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

4. 친환경 인증제도의 변천과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기 이전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농산물품질인증제에 의해 1993년 12월 1일부터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실시하였고, 1996년 3월 28일부터는 저농약재배 농산물도 추가하였다. 이 때 품질인증의 종류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재배 등 4가지 종류로 구분되었다.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12월 13일부터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인증제도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표시신고제도는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게 되었다. 즉 인증과 표시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2001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명칭을 개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과 표시신고가 일원화되었다. 이 때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유기재배 및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 및 저농약재배 등 4가지이었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0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6년에 취급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종류에서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폐지하였다. 2009년에는 저농약재배 인증도 폐지되어 친환경인증 종류는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 등 2가지로 축소되었다.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유보조건으로서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은 중단하고, 기존에 받은 인증은 201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2011년에는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 등을 신설하였다.

Table 2. Transition process of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Date	Contents
Quality certifications about organic and non-pesticide agri-products	1993.12. 1	Based on law of promoting PQAMP ³⁾
Quality certifications about low-pesticide agri-products	1996. 3.28	Based on law of promoting PQAMP ³⁾
Enactment of law of promoting EFA ¹⁾	1997.12.13	Introducing the system of labelling report
Total revision of law of promoting EFA	2001. 1.26	Revising law title, introducing EFAP ⁴⁾ certification system and private certification sector
Partial revision of law of promoting EFA	2006. 9.27	Introducing transactor certification system, abolition of certification of transition period organic products
Partial revision of law of promoting EFA	2009. 4. 1	abolition of certification of low-pesticide agri-products
Partial revision of law of promoting EFA	2011. 3. 9	Establishment of using environment-friendly and organic materials
Total revision of law of promoting & managing EFAOF ²⁾	2013. 6. 2	Revising law title, mandatory of transactor certification, mutual recognition for equivalence of organic processing products
Partial revision of law of promoting & managing EFAOF	2014. 9.25	Strengthening management of private certification sector

Notes 1) EFA :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2) EFAOF :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organic food.

3) PQAMP : processing industry and quality control of agri-marine products.

4) EFAP : Environment-friendly agri-products.

Sources : www.naqs.go.kr

2013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로 법률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국내외 유기농식품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4년에는 친환경 인증사고에 대한 언론매체의 대대적인 보도에 따라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인증심사원 2명 이상과 시설을 갖춘 자에서 인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강화하였다.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자격기준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인증심사

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고 둘째, 자격취소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해 기준에 맞지 않는 유기식품 등을 인증한 경우 셋째,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Table 2).

Ⅲ. 유기농업의 문제점

1.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 진행

Heo (2007)는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란 관행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유기농업이 답습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에 관한 특징은 첫째, 대규모 기업농 또는 중간유통업자가 성장하면서 생산과 유통이 이들에게 집중된다. 둘째, 외부에서 생산된 공장식, 에너지 집약적 투입재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셋째, 직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에 의한 마케팅보다는 대중지향형 마케팅에 의존한다. 넷째, 유기농업의 전통적 가치나 이념보다는 자본주의적 이윤지향형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친환경농산물⁵⁾의 유통주체별 취급비중을 보면, 중간유통업체(벤더)가 31.3%, 도매시장이 1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생협은 16.4%를 취급하고 있다(MAFRA, 2016).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간유통업체가 주도적인 유통주체로 부각되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생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는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직접 상토를 만들거나 경종 및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농업에 의해 농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다. Choi (2012)의 유기축산 인증농가의 순환농업 실천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기경종-유기축산을 결합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15.6%에 불과하였다. 또한 유기농가는 수익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단작·연작하고,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주로 채소류 및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이은 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유기농가는 유기농업의 철학이나 원칙보다는 안전성을 담보로 한 생산성과 이윤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웰빙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유기농식품 시장에 진입하여 유기농식품 수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유기농산물만의 생산 및 유통실태를 구분할 수 없어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을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2. 초창기 유기농업 철학과 원칙의 경시

197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한 생산자조직은 토양의 화학적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원리를 지키는 생명농업과 생명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하였다. 유기농산물 소비자조직의 목표 또한 생태순환형 지역농업의 실현과 친환경적 생활의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존 공생 등에 두고 있다. 즉 유기농업은 환경과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유기농가는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서 이윤극대화가 목표인 대기업 유통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 즉 시장원리에 편입되어 물질적, 경제적 이득 편향의 유기농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프리미엄 가격 획득을 위한 부실·허위인증 사례가 최근에 증가되고 있다. 2014년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보면,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혼합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 사용, 벌써 소득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농약을 사용한 육묘장에서 모종 구입, 농약이 함유된 상토나 자재 사용 등이었다(www.naqs.go.kr).

이에 대해 Choi (2012)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위로부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시장의존과 세계식량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유기농산물이 소비자나 유통부문의 요구를 추종하는 규모의 경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치중하였으며, 자원순환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주의와 물질주의의 일변도의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유기농업의 협동 및 순환의 원칙을 경시하는 개별적이고 순환 단절의 경영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유기농업은 생산자(조직)와 소비자(단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협동하고 교류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을 중심에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개별화되고 있다. 또 농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물질순환, 생명순환의 경영방식인 순환농업이 아닌, 외부 공장에서 구입 조달한 농자재의 투입을 위주로 하는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경영방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또한 유기농업의 농업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외부경제효과를 인식하여 소비하기 보다는 가족이기주의에 입각한 소비동기가 강하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의 구입동기를 주로 안전성 및 가족의 건강이 59.9%,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10.5% 등에 두고 있는 반면에 환경보호는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

3.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

유기농업의 철학과 원칙의 관점에서 본 친환경농어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인증의 기준이 소비자지향 관점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보장받기에 유리하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정부나 민간 인증기관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을 관행농산물과 구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이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 유통업이 개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류와 신뢰의 기반이 약화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의 조항을 보면 관리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 전면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과거의 친환경농업육성법보다 관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친환경농어업법의 목적은 환경보전 기능 증대,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관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등에 있다. 그런데 환경보전이나 친환경농어업인의 육성보다는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보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유기농업과 무농약재배에 대한 인증을 동일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어 유기농업의 차별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유기농업과 무농약재배의 환경생태적 효과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률 및 제도가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의 역사와 철학, 생태친화성 및 물질·생명순환의 원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삼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투입농자재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인증을 함으로써, 자원순환적 생산과정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하는 전문업체가 공산품으로 생산한 것을 농가가 구입 사용하더라도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기농업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 대안농업의 특성이 충실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투입재 위주로 유기농식품, 유기농산물을 개념화하면 안 된다(Heo, 2007).

IV. 유기농업의 전개방향: 철학과 원칙에 충실한 유기농업

유기농업은 생명철학·공생철학, 협동과 순환의 원칙, 친환경성 및 안전성 등에 입각한 경영방식이 필요하다. 즉 1970년대 중반, 유기농업의 조직화를 통해 시작했던 생산자 및 소비자조직의 선구자들이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에 제안했던 유기농업의 개념과 유기농업의 철학⁶⁾을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1. 유기농업의 개념

유기농업의 개념은 단순히 농약과 화학비료 같은 농업 투입재를 기준으로 규정될 수 없다. 유기농업은 자연생태계의 일부를 변형하여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술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이다.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약탈, 파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농업계 및 자연생태계는 유기적인 관계이고 자연은 생명의 집합체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유기농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측면이 충족되는 경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체의 합성화학물질(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순환형 영농방식에 의한 유기물 및 자연적 자재의 토양환원과 비배 및 토양관리, 사육관리 등으로 지력을 회복 유지하면서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 생태론적인 측면에서, 토양미생물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 공생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력을 지속시켜 식량생산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립하고 농가경제의 안정과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넷째, 식품학적인 측면에서,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공급하여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철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순환 및 공생의 원리에 입각한 생산활동 및 생산물을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기적 협동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 공생하는 협동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2. 유기농업의 철학 : 생명순환 및 공생의 원리

유기농업의 철학으로는 생명순환의 원리와 공생의 원리 즉, 생명철학과 공생철학을 들 수 있다. 먼저, 유기농업은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중시하며 생명순환의 원리에 입각한 농법이다. 생명순환의 원리는 유기농업의 생명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농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으로 이용되는 동식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식물은 토양 속의 생명체인 미생물이 태양에너지와 대기, 물 등

6) 이 부분은 주로 Kim (1994)을 일부 수정 요약, 보완한 것임.

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의 생명관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속의 미생물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의 균형과 순환을 통해 각각 존립할 수 있다.

한편, 공생의 원리는 생명순환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생이란 살아가고 살리는 다양한 관계를 모든 장에서 발견 창조해 가는 것이다. 유기농산물은 작물과 가축이 생명으로서의 독자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위의 생태계와도 균형을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산되고 있다. 자연계의 현상은 태양, 대기, 물, 토양 등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의 순환에 의해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계는 동물, 식물, 인간 등 어느 한 존재만의 단독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과 동식물 및 인간이 일체가 되는 순환농업이어야 한다. 또한 공생이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또 도시와 농촌, 농·공·상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독자성이 존중되면서 대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 풍요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3.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대안시장 지향

유기농업의 협동은 앞에서 살펴 본 공생철학과 관련이 있다. 공생철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생산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협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선도-추종, 지배-피지배 등과 같은 주종관계 또는 대립관계에서가 아니라 자발성과 자립성에 기초한 대등한 입장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생산자들의 협동은 지역단위의 유기농업으로 자원순환체계를 갖추는 지역농업 복합화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농업의 복합화는 개별농가의 각각 다른 작목이 지역농업 단위에서 부문 간 결합을 함으로써 지역 내 물질순환과 지역자원의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결합은 각각의 폐기물 또는 부산물이 상호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자원)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생산자(조직)와 소비자(조직)의 협동관계는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로 나타난다.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직거래는 소비자가 생산물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유기농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 및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방법이다. 초기의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및 교류,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의 직거래를 하였으나 최근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유기농산물 유통의 관행농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기농산물 유통이 틈새시장을 지향하는 것은 협동의 원리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틈새시장은 주류시장을 지향하는 주류시장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주류시장은 대기업 유통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이윤극대화 일변도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주류시장에서는 유기농업

의 철학과 원칙이 경시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상품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농산물 유통은 대안시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대안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교류와 이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의 원리가 통하는 시장이다. 생협이 대안시장을 지향하는 방법은 거대화되어 있는 일부 지역생협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중소규모로 독립 분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최근의 친환경 학교급식, CSA,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 등이 유기농산물의 대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산물 대안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주체로 한 유기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연계성 및 일관성, 전체성을 가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유기농업은 초기에 친환경성 및 안전성, 생명철학 및 공생철학, 협동과 순환 등의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런데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추진, 생산자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인증제도의 실시에 따른 프리미엄가격 수취 가능성, 농업인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소득 향상 기대 등에 의해 유기농가 및 인증면적과 출하량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생산량이 증가되고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주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는 유기농업의 철학과 원칙을 경시하는 경제활동의 경향이 심화되고, 최근에는 부정 및 허위인증으로 인한 인증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소비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2012년 이후부터 유기농업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유기농가의 소득도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즉, 유기농업의 철학과 원칙에 충실한 영농방식이 실천되어야 한다. 유기농업의 생명철학, 자원순환형 지역농업, 관계성과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대안시장의 지향 등 유기농업의 본질에 충실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Submitted, February. 3, 2017 ; Revised, February. 18, 2017 ; Accepted, February. 22, 2017]

References

1. Choi, D. C. 2012. Principles and New Directions of Organic Agriculture. KAOA Symposium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2. Heo, J. 2007. Discussion on the “Conventionalization” and Crisis of Organic Agricultur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0(1): 1-30.
3. Jeong, H. K. and D. H. Moon. 2013. Response Strategy to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KREI.
4. Kim, C. G., H. K. Jeong, and D. H. Moon. 2012.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us and Market Prospect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KREI.
5. Kim, H. 1994. A Study on the Economic Background and Management Method in Organic Farming. *Korean J. Org. Agric.* 3(1): 43-70.
6. Kim, H. 1995. A Study on the Evolution Directions of Development Policy for Environmentally Conscious Agri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36(1): 203-227.
7. Kim, H. 2007. Implications and Situations of Hansalim’s Green Marketing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roducts. *Korean J. Org. Agric.* 15(1): 25-42.
8. Kim, H. 2014. Organic Agriculture; Past, Present and Future. KAOA Symposium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9. Lim, R. K., et. al. 2016. People who have sowed Seeds of Jeongnong. Jeongnong Association.